03 ¿…Ł 2009.7.1 3:15 PM ˘ ` 56 ˜ ¿£˘… ^ •´‰' 02-542-2985

03 ¿...Ł 2009.7.1 3:15 PM ˘ ` 57 ~ ¿£˘... ^ •´‰' 02-542-2985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7호 2009.6. pp.57~84

조태일 시의 인지의미론적 연구

A Study on poetics of Tae-Il Joe by a cognitive semantic method

이동순

(단국대 박사과정)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이해와 접근 방법
2) 국토 인식과 저항 의식
3) 자유 의지와 생명 의식
3. 결론

1. 서론

조태일(1941~1999)은 1964년 시 「아침 선박(船舶)」이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1]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9년 간암으로 타계할 때까지 총 여덟 권의 시집[2] 및 다수의 시론집[3]과 시선집[4] 등을 상재하였다. 부단한 시작(詩作)

1) 강홍규,『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나들목, 2004. ; 당선에 대한 일화가 있다. 등단작이 없어 고민하던 심사위원(신동문)의 눈에 띄어 예선 탈락한 조태일의 누런 원고지가 당선작으로 뽑혔다.

2) 제1시집, 『아침 선박(船舶)』, 선명문화사, 1965.
제2시집, 『식칼론』, 시인사, 1970.
제3시집, 『국토(國土)』, 창작과비평사, 1975.
제4시집, 『가거도』, 창작과비평사, 1983.
제5시집, 『자유가 시인더러』, 창작과비평사, 1987.
제6시집, 『산속에서 꽃속에서』, 창작과비평사, 1991.
제7시집,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 창작과비평사, 1995.
제8시집, 『혼자 타오르고 있었네』, 창작과비평사, 1999.

3) 『고여 있는 시와 움직이는 시』(전예원, 1981), 『시창작을 위한 시론』(나남출판사, 1994), 『알기쉬운 시창작 강의』(나남출판사, 1999).

4) 『아아 내 나라』(시인사, 1982), 『다시 산하(山河)에게』(미래사, 1991).

03 ¿…Ł 2009.7.1 3:15 PM ˘ ` 58 ˜ ¿£˘… ^ •´‰' 02-542-2985

활동과 학자다운 면모를 통하여 격동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독보적인 시세계를 구축하였으며, 시사적(詩史的) 차원에서도 남다른 의미를 지니는 시적 성과를 이루었다.

지금까지의 조태일 시세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식칼론』과 『국토』를 통한 시적 저항성과 현실 참여적 성격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시세계의 변모과정을 연구한 측면, 이미지 양상을 중심으로 연구한 측면, 그리고 원초적 생명력을 통해 그의 시세계를 이해한 측면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작품에 대한 분석적 접근보다는 시인의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에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그의 시인다운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지인들의 인물평이나 진솔함과 친근감으로 다가오는 단평들이 뒤를 잇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후기시에 대한 연구 움직임이 보이고 원전비평에 의한 연구 성과도 일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조태일 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는 새로운 시 연구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지의미론의 시학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조태일의 시를 이해하고 그 시세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조태일 시의 의미 구조와 시학성을 인지적 방법을 원용하여 분석해 봄으로써 앞으로 조태일 시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은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한다.

인지의미론이 이해 주체자의 주체적인 의미의 구축과 탐색을 통하여 창조적 이해에 도달하려는 데 목표[5]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문학의 연구 태도와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시 연구가 또 다른 창조적인 활동 영역임에 틀림없다면 인지의미론을 통한 인지시학적 접근 방법은 매우 효율적이며 타당한 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조태일 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인지의미론적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적 화자, 즉 인지주체가 시적 대상을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행위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가. 이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공감의 축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적의미와 지향점은 무엇인가, 등의 문

5) 양병호, 『한국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p.24.

03 ¿…Ł 2009.7.1 3:15 PM ˘ ` 59 ~ ¿£˘… ^ •´‰' 02-542-2985

제들에 대하여 체계적인 작품 분석을 통해 인지구조를 밝히고자 한다. 즉 조태일의 시가 어떠한 주체적 인지 경로를 통해 시적 구조와 시적 의미를 구축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시를 범주화, 즉 카테고리화 함으로써 조태일의 시세계의 내적 질서를 규명하고 시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본론

1) 이해와 접근 방법

시 연구에 있어 인지의미론적 접근 방법은 아직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작품 분석에 앞서 그 원론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지의미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의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인지체(cognizer)가 환경에서 얻는 정보 항목은 무한하고 연속적(analogical)인 것에서 유한하고 단절적(digital)인 것까지 다양하나, 전자에서 후자로의 전환 과정(process)은 대단히 중요하며 이를 주로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이라 한다.[6]

그러므로 인지는 연속적 정보를 단절적 정보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인지과정에서 인지 주체자의 주관성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다시 말해 연속적 정보를 단절적 정보로 전환시키는 가운데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의 범주화(categorization)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의미의 범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의 인지 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인지 의미론이란 언어의 객관적·고정적 의미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의미의 생성·부여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탐구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언어로 제시된 의미가 어떠한 인지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는가에 논의의 초점을 둔다.[7]

6) 이정민, 「언어의 표상과 인지」, 『언어학과 인지』, 한국문화사, 1992, p.274.

03 ¿…Ł 2009.7.1 3:15 PM ˘ ` 60 ~ ¿£˘… ^ •´‰' 02-542-2985

이와 같은 비객관주의적 인지의미의 이론은 이해의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는 역사와 문화에 끼어들고, 인간의 몸에 구현되고, 상상력에 의해서 구조화되는 사건으로서 다루어진다. 우리가 환경세계에서 지각하는 여러 대상들을 분류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해 주체자의 체험과 한 사회의 사회적, 이데올로기적, 문화적 기호 의미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8)]

인지의미론의 방법론을 문학 작품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와 그 타당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먼저 인지의미론이나 문학 연구 모두 연구 대상을 '언어'에 두고 있다는 점이며, 다음으로 연구 대상인 '언어'를 통하여 의미의 해명에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공통점이다. 이해 주체자의 주관에 따라 의미를 인지·인식하려는 인지의미론은 문학적 의미의 구축과 탐색을 통하여 창조적 이해에 도달하려는 문학의 연구 태도에 적절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일 수 있다.[9)]

그러면 인지의미론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들과 그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정리된 개념과 방법들을 시 연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인지의미론은 인지 주체가 경험에 입각해서 의미 부여하는 주된 방식으로 카테고리(category)의 형성이라는 것에 관심을 둔다. 카테고리화(categorization)는 무질서한 세계에 대해 경험을 통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인지 방식이라 할 수 있다.[10)]

문학 작품은 기호인 언어로 대상인 사물을 형상화·의미구조화해 놓은 구조물이라 할 수 있다. 독자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언어라는 창을 통해 문학적 의미에 접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원천적으로 불완전성을 내포·소지

7) 양병호, 『한국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p.21.
8) 우리는 환경 세계에서 인지하는 여러 대상들을 범주화(category)하는데, 그것은 문화의 형태로 변별성을 갖는다. 또한 그 문화의 변별성은 기호 의미의 창발에 주체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김형효의 「기호학과 문화의 해독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언어 문화 그리고 인간』, 고려원 1993, 참조.
9) 위의 책, p.25.
10) 사물은 그것들이 공유하는 것에 입각해서 간추려져서 카테고리화 된다. 카테고리는 공통의 속성을 가지고서 정의된다. G.레이코프, 이기우 역, 『인지의미론』, 한국문화사, 1994, p.5.

03 ¿…Ł 2009.7.1 3:15 PM ˘ ` 61 ~ ¿£˘… ^ •´‰' 02-542-2985

하고 있다. 그 불완전성은 언어 기호의 유기체적 특성 때문에 일어난다. 즉 언어 기호의 의미는 항상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불변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유기체적 변화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언어가 지니고 있는 불완전성은 문학의 의미에 도달하려는 독자의 행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일쑤다.[11]

그리하여 인지의미론에서는 전통적 의미론에서 행해온 미리 결정되거나 고정화된 코드에 따라 언어의 의미를 인지·인식하지 않고, 이해 주체자의 주관에 따라 의미를 인지·인식하려 한다. 하나의 대상이 실재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있는 것과 인간의 주관이 상호작용을 하여 경험주의에 의해 의미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를 통한 의미의 이해에는 이해 주체자의 체험, 환경 세계, 역사성, 지식 등의 개입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12]

유동적이고 주관적인 인지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카테고리화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가족적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이다. 카테고리의 성원은, 카테고리를 정의하는 공통 속성을 모든 성원들이 갖지 않더라도 가족적 유사성에 의해 서로 관련된다는 생각이다.[13]

한편 비트겐슈타인은 수 등의 예를 통해 카테고리 안에서의 중심적인 성원과 비중심적인 성원구분하고 있으며 사례의 전형성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14]

한편 인지의미론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인 마크 존슨은 신체화된 상상력에 의한 반복적 이미지 도식을 통하여 의미가 창발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다.[15]

---

11) 이와 같이 문학 언어가 본질적으로 안고 있는 의미의 불완전성에 대한 해석·이해의 문제는 문학이 언어 기호에 기대어져 있는 만큼 그동안 언어학의 연구방법을 통해 많은 부분을 해결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최근에 문학과 언어학을 가장 밀접하게 관련시킨 분야는 인지의미론(cognitive semantics) 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서구에서 부각되고 있는 인지의미론은 현대 문학에 대한 이론을 새롭게 이해하고 방법론을 개발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양병호, 『한국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pp.17~18.

12) 이와 같은 견해는 기호학적 견지에서 보면 '문화적 단위로서의 의미'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움베르토 에코, 서우석 역, 『기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5, pp.76~78 참조.

13) G.레이코프, 위의 책, p.17 참조.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게임들이 공유하는 단 하나의 속성 집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족적 유사성'에 의해 게임의 집합은 통합되어 있다면서 단 하나의, 명확히 정의되는 공통 속성의 집합이 아니라, 유사성에 의해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14) G.레이코프, 이기우 역, 『인지의미론』, 한국문화사, 1994, pp.18~19.

03 ¿...Ł 2009.7.1 3:15 PM ˘ ` 62 ~ ¿£˘... ^ •´‰' 02-542-2985

이미지 도식은 단편적인 이미지는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지 도식은 특정한 경험을 도식적으로 구조화하고, 그 결과 우리의 지각과 개념화 작용에 질서와의 결부를 부여하는 수단이다. 한편 우리는 이미지 도식의 갖가지 도식 요소를 은유적으로 해석함으로서 세계에 관한 이해나 경험에 구조를 부여한다. 인간이 하는 경험의 수많은 영역에 은유체계가 실질적인 구조를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간적 이해는 은유적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구조에는, 의미있는 경험의 직물을 짜내고 있는(신체·지각·문화·언어·역사·경제로부터) 영향 모두가 섞여져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유는 명제의 차원보다도 훨씬 넓은 광대한 차원, 즉 우리의 존재가 신체화되어 있는 차원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다.[16]

인지의미론은 스스로 사고하고 기능을 발휘하면서 생존하는 주체에 무엇이 '의미' 있는 것으로 되는가 하는 문제에 주목한다. 그리하여 인지 주체가 경험에 입각해서 의미 부여하는 주된 방식으로 카테고리의 형성이라는 것에 관심을 표명한다.

조태일 시에서 인지주체가 경험한 세계에서 인지한 주된 인지대상을 카테고리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이는 '국토'라는 공간을 통해 인식되는 이미지 도식과 저항의 이미지를 통해 환기되는 은유의 확장, 그리고 자유의지와 생명의식이라는 존재론적 은유[17]를 통해 유형화할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그 카테고리에 대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또한 신체화된 이미지를 통해 이룩된 시적 체계를 살피고 이를 이미지 도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조태일 시를 통해 인지주체가 어떤 사물과 대상, 혹은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것이 어떤 인지 과정을 통해 이해주체자의 주체적 의미 구축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는 반드시 인지의미

15) 마크존슨은 이미지 도식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이해하거나 추리할 수 있는 의미 있게 결합된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행동·지각·개념 작용이 패턴과 질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런 동적인 질서부여의 행동들에 갖추어지는 반복되는 패턴·형·규칙바름을 말한다고 주창하였다. 마크 존슨, 이기우 역, 『마음 속의 몸』, 한국문화사, 1992, p.85.

16) 마크 존슨, 이기우 역, 『마음 속의 몸』, 한국문화사, 1992, p.189.

17) 존재론적(ontological) 은유는 추상적인 사건, 활동, 감정, 생각 등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물체나 물질을 통해 이해하고 개념화하는 방식이다. 양병호, 『한국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p.47.

03 ¿…Ł 2009.7.1 3:15 PM ˘ ` 63 ~ ¿£˘… ^ •´‰' 02-542-2985

론이 주목하고 있는 이해주체자의 주관이 개입하게 된다. 이런 주관에 관여하는 것이 이해주체자의 체험, 환경세계, 역사성, 지식 등이 있다. 이를 이해하고 구조화하기 위해 역사적 상황과 시대 현실, 그리고 이해주체의 체험적 사실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조태일 시세계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2) 국토 인식과 저항 의식

「국토서시」는 시집 『국토』(1975)를 내면서 그 서시로 지은 시이다. 조태일은 『국토』 후기에 '최근 5년 동안 쓴 작품을 모아서 시집을 낸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시집 『국토』의 시는 대부분 1970년대 초가 시대적 배경을 이룬다. 「국토서시」 또한 1970년대 초의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할 것이다.

1970년대 초, 유신 독재 정권 하의 암울한 시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민중에게 있어서 국토는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적 공간이다. 민초들의 삶이란 땅에서 태어나 땅에서 살다가 땅 위에 잠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태일은 『국토』를 통해 확고한 역사의식과 민중의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국토서시」를 포함하여 '국토' 연작시 48편의 주제는 이 땅의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국토서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통해 국토에 대한 인식의 전면을 보여준다. 이는 국토에서 살아가는 민중에 대한 애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발바닥이 다 닳아 새 살이 돋도록 우리는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야윈 팔다리일망정 한껏 휘저어
슬픔도 기쁨도 한껏 가슴으로 맞대며 우리는

03 ¿…Ł 2009.7.1 3:15 PM ˘ ` 64 ~ ¿£˘… ^ •´‰' 02-542-2985

우리의 가락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버려진 땅에 돋아난 풀잎 하나에서부터
조용히 발버둥치는 돌멩이 하나에까지
이름도 없이 빈 벌판 빈 하늘에 뿌려진
저 혼에까지 저 숨결에까지 닿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지필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숨결을 보탤 일이다.
일렁이는 피와 다 닳아진 살결과
허연 뼈까지를 통째로 보탤 일이다.

-「국토서시」 전문

1연의 인식체계는 발바닥이 다 닳아 새 살이 돋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땅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구도를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화자는 국토를 헌신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의 땅을 밟는 행위'는 국토에 대한 사랑의 행위이며 진정한 애정의 표현이다. 한편 '밟을 수밖에 없다'는 표현에서는 '우리의 땅'이 우리가 살아갈 숙명적인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도 담겨있는 표현이다.

2연에서도 이러한 인식체계가 이어지고 있다. 숨결이 다 타올라 새 숨결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화자의 헌신적은 국토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숨결은 사랑이다. 숨결이 다 타오르면 죽음을 의미하고, 그 숨결이 다 타올라야 비로소 새 숨결이 열리는 것이다. '새 숨결이 열린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1970년대 정치적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헌신적인 국토에 대한 사랑으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자고 화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하늘 밑을 서성이는 행위'도 결국 국토를 사랑하는 행위로 이해된다.

3연에서는 비록 야윈 팔다리일망정 한껏 휘저어서, 슬픔도 기쁨도 한껏 가슴으로 맞대며, 우리는 우리의 가락 속을 거닐 수밖에 없는 일이다. 여기서 '야윈

03 ¿…Ł 2009.7.1 3:15 PM ˘ ` 65 ~ ¿£˘… ^ •´‰' 02-542-2985

팔다리'는 고난의 역사에 피폐해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슬픔과 기쁨'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슬픔이요 기쁨이다. '가슴으로 맞대는 행위'는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이다. 정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가락은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거닐 수밖에 없다'는 표현 속에는 슬프거나 기쁘거나 이 땅, 즉 우리의 국토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4연에서 국토에 대한 사랑은 버려진 땅에 돋아난 풀잎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어 조용히 발버둥치는 돌멩이 하나에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이름도 없이 빈 벌판 빈 하늘에 뿌려진 저 혼에까지 숨결에 까지 닿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버려진 땅에 돋아난 풀잎'은 이 땅에서 소외받고 있는 민중을 의미한다. '풀잎'은 바로 민초(民草) 즉 민중으로 이해된다. '빈 벌판 빈 하늘에 뿌려진 저 혼, 저 숨결'도 이 땅에서 소외된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다. 이 시에서 말하는 국토에 대한 사랑은 곧 이 땅의 민중에 대한 애정인 것이다.

5연에서 시적화자의 목소리는 몸짓으로 확장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지필 일이다. '삶을 불 지피는' 행위는 곧 자신을 불태워서 이 땅의 민중을 구원하는 지극히 고결한 행위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숨결을 보탠다.'는 것은 생명의 힘을 보태는 행위이다. 나를 불태우고 생명의 힘을 옮겨서 민중을 구원하는 실천적 의지와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렁이는 피와 닳아진 살결, 허연 뼈까지 통째로 보태고 있다. 전체를 바쳐서 오롯이 생명의 터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인한 의지와 행위가 '~ㄹ 일이다'라는 당위적 표현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되고 있다. 종결어미 '~수밖에 없는 일이다.'의 반복적 사용은 마치 주문처럼 암담한 시대의 현실 인식을 뛰어넘어 숙명적 존재의 극복과 초극을 바라는 인지주체의 의지를 보여준다.

여기서 인식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다. '우리'라는 불특정다수이자 민중 전체로 설정되어 있다. '우리'의 성격은 공동운명체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이다. 이와 같은 집단 인식은 국토라는 공간영역과 역사라는 시간영역이 교직될 때 나타난다. 이는 개인의 삶의 영역이 역사적 맥락에 투영되어 숙명적 존재라는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적 존재로 나아가는 인식의 확장이다.

03 ¿…Ł 2009.7.1 3:15 PM ˘ ` 66 ~ ¿£˘… ^ •´‰' 02-542-2985

'국토'는 개개인의 차원이 아닌 우리가 공동체적 시각으로 같이 인식해야 할 땅이다. '국토' 연작시의 서막이자, 그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는 '국토서시'에 형상화된 '국토'의 인지양상을 땅의 의미로 환원하여 시적 의미와 인식론적 구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 \ 항목	인지주체	인지대상	인지양상	인지행위	인지의미
1	우리는	우리의 땅	발바닥이 다 닳아 새 살이 돋도록	밟을 수밖에 없다.	숙명적 존재
2	우리는	우리의 하늘 밑	숨결이 다 따올라 새 숨결이 열리도록	서성일 수밖에 없다.	
3	우리는	우리의 가락 속	슬픔과 기쁨을 가슴으로 맞대며	거닐 수밖에 없다	
4		풀잎, 돌멩이, 이름 없는 혼, 숨결	닿도록		
5	우리는	우리의 삶		불지필 일이다	숙명적 존재의 극복의지
		피, 살결, 뼈	통째로	보탤 일이다	

「국토서시」의 인식론적 구도에서 특이한 점은 인지주체는 '국토'를 우리의 땅과 하늘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사소한 생명(풀잎), 혹은 무생물(돌멩이)까지도 총체적으로 인지하면서 이를 신체어로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바닥', '숨결', '피', '살결', '뼈'와 같은 시어들이 그렇다. '국토'라는 물리적 공간과 우리의 신체적 행위가 맞닿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곧 '국토'라는 물리적 공간을 우리의 '몸'과 일치시키는 은유로 환기함으로써 진정한 국토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연마다 신체어가 밀도 있게 그려지고 있으며 그 이미지를 통해 국토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지양상은 인지주체를 개인적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라는 전체로 규정함으로써 총체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03 ¿…Ł 2009.7.1 3:15 PM ˘ ` 67 ~ ¿£˘… ^ •´‰' 02-542-2985

국토서시의 이미지 도식은 일정한 질서를 보여주는 동적 활동들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 이런 패턴들은 의미 있는 구조로서, 주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운동, 대상의 조작, 지적인 상호작용의 수준에서 나타난다.[18] 「국토서시」는 물리적 '포함'의 전형적 패턴이 그 내적 구조를 이룬다. 즉 국토라는 물리적 공간이 우리의 몸을 포함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구현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를 '용기(用器)도식'[19]이라고도 일컫는다.

신체 활동을 통해 국토와 소통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국토'를 우리의 모태로 보는 동양 철학과 맥이 통한다. 이는 하나의 몸은 소우주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숙명적 존재로 인식되는 삶은 국토라는 상위 개념의 몸과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하게 마련이다. 이는 몸의 은유적 확장을 통해 고양될 수 있으며 이런 행위가 구체적으로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마땅히 이런 헌신적인 노력의 결정체가 현실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운명론적인 삶의 태도와 인식의 영역을 뛰어넘어 주체적인 지위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국토'에서 보여주는 인지양상은 이와 같은 신체적 상상력을 통해 물리적 공간을 상징적으로 인지하면서 우리의 삶과 밀착된 시어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해방 이후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은 분단과 이념의 장벽과 싸워야 했다. 1960년대는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가 휩쓸고 지나간 후의 암울한 시기였다. 많은 지식인들이 개발 독재 아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저항의 몸짓은 꾸준히 전개되었다. 한편 시 분야에서는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현실 비판적인 민중의식을 담아내는 참여시가 물꼬를 트고 그 목소리를 가다듬어가는 시기였다. 조태일의 「식칼론」 연작시는 이런 시대 인식과 작품 경향을 잘 보여준다.

---

18) 마크 존슨, 이기우 역, 『마음 속의 몸』, 한국문화사, 1992, p.85.

19) 양병호, 『한국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p.44 참조. 존슨은 다양한 언어 표현들을 예로 들어가며 여러 이미지 도식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용기 도식(container schema)은 3차원의 공간 영역에서 안과 밖을 지닌 그릇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이 이미지 도식은 수많은 비공간적 영역에 은유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내 말 속에 그런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니야'라는 실례에서 '말'이라는 언어표현은 용기로 개념화된다.

03 ¿…Ł 2009.7.1 3:15 PM ˘ ` 68 ˜ ¿£˘… ^ •´‰' 02-542-2985

창 틈으로 당당히 걸어오는
햇빛으로 달구었어!
가장 타당한 말씀으로 벼리고요.

신라의 허황한 힘보다야 날카롭고
정읍사(井邑詞)의 몇 구절보다는 덜 애절한
너그럽기는 무등산 허리에 버금 가고
위력은
세계지리부도쯤은 한칼이지요

흐르는 피 앞에서는 묵묵하고
숨겨진 영양 앞에서는 날쌔지요
비장하는 데 신경을 안 세워도 돼,
늘 본관의 심장 가까이 있고
늘 제군의 심장 가까이 있되
밝게만 밝게만 번득이면 돼요
그의 적은
육법전서에 대부분 누워 있고……
아니요 아니요
유형 무형의 전부요

–「식칼론 1」 전문

조태일의 연작시 「식칼론」에서 '식칼'은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확장되고 있는가를 추적하기로 하자.

일상적인 의미로 '식칼'은 부정적 인식의 범주에 속한다. 폭력과 위험을 내포하며 날카롭고 예리하며 어둠을 연상시킨다. 하지만 조태일의 식칼은 밝고 올바른 칼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환기된다. 인지 대상의 일상적 의미가 전복되고 있다. 식칼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평범하고 유용한 칼이다. 화려하거나 위엄이 있는 칼이 아니다.

03 ¿…Ł 2009.7.1 3:15 PM ˘ ` 69 ~ ¿£˘… ^ •´‰' 02-542-2985

이 시에서 1차적으로 인식의 주체는 서민이며 본래의 용도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필수품이다. 이런 익숙한 대상이 관용적으로는 부정적 의미로 전이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식칼의 의미구도이다. 하지만 조태일의 시 '식칼'은 사회적 상황과 역사적 사실과 결합하면서 그리고 인식주체의 의지와 결부되어 제3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그것은 현실의 어둠에 맞설 수 있는 현실의 모순을 제거하는 정의의 칼이며 사회적 억압에 대한 해방의 칼이다.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현실을 올바른 길로 회귀시키려는 적극적이고 상징적인 칼로 실천의지의 의미가 담긴 칼인 것이다.

항목 / 연	인지대상	인지양상	인지행위	인지의미
1	식칼	햇빛 말씀	달구고 벼리다	유형 무형의 전부의 적을 향한 강한 저항과 부정
2	식칼	날카롭다 애절하다 위력적이다	한칼이다	
3	식칼	묵묵함 날쌔고 번뜩임	심장 가까이에서 있어야 함	

'식칼론'에 제시된 인지대상은 현실의 어둠을 인식한 주체의 저항적 의지의 상징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식칼'의 의미는 1차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에서 확장된 파생적 의미와 함께 주관적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다. '무력' 혹은 부정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식칼의 주변적 의미로서의 폭력적인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 본래의 의미에서 전이된 의미로 어둠의 주체가 아닌 어둠에 대항하는 주체로 환치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인지대상, 즉 식칼에 대한 인지양상은 밝고 떳떳하며 강하고 날카롭다. 때론 민중적인 애절함도 품은 칼이 된다. 이를 통해 인지 주체는 한칼에 적의 심장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저항의 몸짓으로 식칼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3) 자유 의지와 생명 의식

조태일의 연작시 '식칼론'과 '국토'가 저항의식의 발현이라면 그것은 국토의

03 ¿…Ł 2009.7.1 3:15 PM ˘ ` 70 ˜ ¿£˘… ^ •´‰' 02-542-2985

연장선상의 있는 '가거도'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직하게 밟아온 국토에 대한 애정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 대한 강한 저항의 칼날로 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 참여적이고 저항적인 몸짓은 자유에 대한 갈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조태일의 다섯 번째 시집 『자유가 시인더러』와 이후의 나온 시집의 작품들은 자유의지와 생명의식이라는 주제로 함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세계의 근간은 그의 유년시절의 체험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산문에서 보낸 유년시절은 온갖 축생들과 한가지로 원시적인 경험을 누렸으나, 여순사건의 반란군 등쌀에 "어둠속에서 두근거리는 가슴 조이며 / 한밤 내 대창 부딪는 소리 들으며 / 친구들 생각에 밤잠 설치고"(「친구들」)[20]에서처럼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유의지에 대한 열망과 원시적 생명력에 대한 탐구는 진지하고 천진한 마음을 통해 자연과 소통하는 생명의식으로 자리 잡는다.

너, 들끓는 쬐그만 가슴을
흐트리지 않고 용케도
여기까지 달려왔구나

무슨 소문 듣고파서
다투며 밀려오는 파도에
큰 눈을 맡기고 설레이는 마음 맡기고
기대어 있는 너의 곁에까지
숨 할딱이며 나 또한
용케도 따라왔구나

지평선 끝에 타오르는
이 시대의 그리움들은 파도치고,

20) 이문구, 「발문」, 조태일, 『가거도』, 창작과비평사, 1983, p.141.

03 ¿…Ł 2009.7.1 3:15 PM ˘ ` 71 ˜ ¿£˘… ^ •´‰' 02-542-2985

저녁놀로 타오르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를 때까지
순한 서로의 눈들은 불꽃이 되어
포개지고 얼싸안고 함께 나뒹굴 때
그렇게 그렇게

사슴의 눈에 사슴의 눈이
어른거릴 때

우리는 입을 열지 않은 채
두고온 온갖 소문들을
파도에게 별빛에게 퍼뜨렸다

거듭 사슴의 눈에
사슴의 눈이 포개질 때,
우리의 눈이 어른거릴 때,
파도는 소문이 되어
더 큰 바다를 향해 떠나고
별들도 소문이 되어
하늘에 바다에 웅성거렸다

–「연가」 전문

이 시는 조태일이 1984년,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도 어수선해서 인천 앞바다를 찾아가서 쓴 시고 한다. 이 시에서 '님'은 가치 있는 세상, 가치 있는 시대다.[21]라고 밝히고 있다. 그의 현실참여적인 자세와 함께 낭만적 태도가 교차하

21) 조태일, 「현실인식, 그리고 사랑과 화해의 세계」, 김규동·신경림 외, 『서랍 속의 숨은 사랑 이야기』, 정민, 1990, p.74.

03 ¿…Ł 2009.7.1 3:15 PM ˘ ` 72 ˜ ¿£˘… ^ •´‰' 02-542-2985

고 있는 셈이다. 현실의 문제를 사랑의 대상으로 환원하여 이상적인 현실을 그리움의 대상, 연인으로 설정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전통적인 낭만주의적 시풍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지적의 수준을 벗어나 체계적인 시학적 접근을 위해 각 연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인지체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1연에서 제시된 인지 대상은 나와 반대편에 존재하는 '너'의 인식이다. 여기서 너의 모습은 '들끓는 쬐그만 가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어 2연에서 그런 '너'의 곁에까지 따라온 '나'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나'와 '너'는 도착점에 이른 시간의 간극이 있고 서로 다른 존재로 표현되어 있지만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어쩌면 동일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1연에서 먼저 온 '너' 그 뒤를 따라온 2연의 '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연에서 너의 모습은 더욱 구체화되고 나와의 관계도 선명해진다. 즉, 나는 그리운 대상을 찾아 왔으며 '너의 곁에' 온 '나'는 '용케도 따라왔구나.'라는 표현을 통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도착할 수 있었음과 만남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사랑하는 대상, '너'의 의미가 가치 있는 시대, 가치 있는 세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3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시대의 그리움'이 이에 해당하는 함축적 표현이다. '시대의 그리움'이 '타오르고', '파도치고' 있다는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형상화하였다. 그것은 인지주체의 내면 심리를 살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붉은 이미지로 타오르는 그리움은 열정과 사랑의 상징이며 간절함의 표현이다. 나는 너를 찾아왔지만 너는 또한 먼 곳에서 있다. 그것은 다시금 거리감으로 표상된다. 대상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대상이기에 그리움이다. 곁에 있다면 그리움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움의 정서는 이렇듯 대상의 부재로부터 기인한다.

따라서 '시대의 그리움'은 이렇게 멀리서 나를 불타게 한다. 그런 그리움과 그리움이 4연과 5연에서 저녁나절부터 밤까지 이어지고 마침내 '사슴의 눈'이 되어 서로의 눈에 어른거린다. '사슴의 눈'은 순박함이다. 순수함이다. 그런 상태로 서로를 응시하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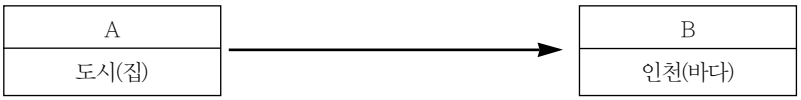
03 ¿…Ł 2009.7.1 3:15 PM ˘ ` 73 ~ ¿£˘… ^ •´‰' 02-542-2985

6연은 그리움의 밀어를 퍼뜨리는 단계다.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 일체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파도에게 별빛에게 퍼뜨리'는 '온갖 소문'들은 결국 시대의 문제이며 현실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인지주체의 의도적 혹은 선동적 몸짓에 해당한다. 여기서 화해와 사랑의 행위가 하나의 의식화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연의 내용은 거듭 서로의 눈이 '사슴의 눈'으로 '포개지고' '어른거리며' '파도'와 '별'들은 소문이 되어 '하늘'과 '바다'에 웅성거리는 상태가 된다. 주체의 위치가 변하고 있다 즉, 앞에서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주체였다면 마지막 연에 와서는 이런 '사랑 → 그리움 → 소문'의 등식이 '소문 → 파도 → 별'로 주체가 '파도'와 '별'로 옮겨갔으며 그리움의 인지대상과 의미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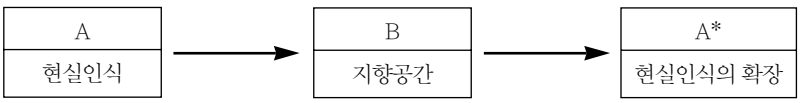
이상의 시상전개를 현실인식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자유의지의 세계라는 입장에서 보면, 공간적 이동에 따른 '길도식'과 내면의 심리변화에 따른 인지대상과 주체의 '주기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길 도식[22)]



한편 인지주체의 인지양상에 대한 내적 구조는 주기도식[23)]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2. 주기 도식



22) 마크 존슨, 이기우 역, 『마음 속의 몸』, 한국문화사, 1992, p.84 참고.
23) 위의 책, p.208 참고.

03 ¿...Ł 2009.7.1 3:15 PM ˘ ` 74 ~ ¿£˘... ^ •´‰' 02-542-2985

우리 문화에서는, 시간의 경과는, 물리적 길을 따르는 운동에 바탕을 두고서 은유적으로 이해된다. 일정한 사물을 낳는 심적 활동이나 심적 기능도 길도식에 의해서 이해된다. 그리고 과정의 경로 일반도, 어떤 종점으로 향하는 길을 따르는 운동으로서 은유적으로 이해된다.[24] 인지주체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표점을 향해 이동한 것은 표면상 길도식에 의한 이미지 구조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디로든 자유롭게 떠나고 싶은 마음은 현대인의 자의식일지도 모른다. 시적자아는 이런 자유의지에 대한 표출로 집을 떠나 인천 앞바다로 향했다. 이는 현실 공간에 대한 인식 위에 있으며 지향공간을 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향의 공간은 자유가 숨 쉬는 공간이며 그런 공간에서 시적자아는 현실을 보다 명료하게 현실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며 지향공간을 확장하고 있다. 즉 인지대상의 확장을 통해 지향공간으로 향하기 전의 '현실인식(A)'에서 '현실인식의 확장(A*)'으로 순환하는 도식을 보이고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시 한편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냥 가렵니다.
황톳길이건 돌밭길이건
잠 못 이루고 서로 앉아 몸 비비며
깨어 있는 풀밭길이라도
어쩌겠소, 어쩌겠소.

그냥 떠나렵니다.
마음 편하건 안 편하건
오늘밤도 저리 잠 못 이루고
깨어서 반짝이는 별밭길이라도
어쩌겠소, 어쩌겠소.

24) 앞의 책, p.205.

03 ¿…Ł 2009.7.1 3:15 PM ˘ ` 75 ˜ ¿£˘… ^ •´‰' 02-542-2985

책들도 노트도 불태워버리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으로
그 기분으로 그 첫울음으로
가렵니다, 떠나렵니다.
말리겠소? 말리겠소?

청청히 솟아 있는 대밭이건
묵묵히 앉아 있는 바윗길이건
철철이 흐르고 있는 강물길이건

어쩔 수 없지 않소
헛말만 떠도는 이곳보다야
훨씬 살아갈 맛이 나지 않겠소?
걸어서 걸어서
잠 이룰 때까지 뜬눈으로.

– 『길』 전문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유의지가 강렬하게 표출된다.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한 자신의 모습을 어디론가 떠나는 행위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인식주체는 현실을 떠나 궁극적인 삶의 공간을 추구하고 있다. 설의적 수법을 통해 미지의 대상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복적 구조는 점층적인 의미의 강화를 이루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등록된 길에 대한 의미 분류를 하자.

1연에는 '황톳길'과 '돌밭길', 그리고 '풀밭길'이 제시되어 있다. 2연에는 '별밭길'이 나온다. 3연은 그 길을 가리라는 강한 신념을 다지고 있다. 4연은 '대밭'과 '바윗길', 그리고 '강물길'이 나온다. 다시 5연에서 그 길을 줄기차게 걸어가겠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그리고 의미의 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03 ¿…Ł 2009.7.1 3:15 PM ˘ ` 76 ˜ ¿£˘… ^ •´‰' 02-542-2985

인지영역	인지 대상	공감의 축	인지행위	지향점	지향 의미
길	황톳길	어쩌겠소	떠나렵니다	떠도는 이곳 보다 살아갈 맛 나는 곳	진실한 삶 추구
	풀밭길				
	별밭길				
	대밭				
	바위길				
	강물길				

부정적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자유의지가 '길'을 통해 인지되고 떠나는 인지행위로 표출되고 있다. '어쩌겠소'라는 공감의 축을 형성하면서 가상의 독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길'의 인지영역에는 반드시 지향점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어디든 길이 이어지고 그 길 끝에는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 설정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길이 제시되고 있음을 통해 어떤 조건이라도 길을 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3연의 "책들도 노트도 불태워버리고 / 다시 태어나는 순간으로 / 그 기분으로 그 첫울음으로" 가겠다는 것은 순수한 생명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위적 가식을 버리고 태초의 '첫울음' 그 생명력을 통해서만이 지향점인 진실한 삶에 도달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조태일 시의 인지구조는 부정적 현실인식과 이에 대한 극복의 몸짓을 기본 구도로 한다. 이를 동력으로 저항의 목소리를 통해 자유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런 자유의지는 자연과 함께 했던 유년시절의 체험[25]이 순수한 생명의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풀씨가 날아다니다 멈추는 곳
그곳이 나의 고향,
그곳에 묻히리.

25) 이와 밀접한 시가 조태일의 「원달리의 아버지」이다. "모든 소리들 죽은 듯 잠든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 1리 // 구산의 하나인 동리산 속 / 태안사의 중으로 / 서른다섯 나이에 열일곱 나이 처녀를 얻어 // 깊은 산골의 바람이나 구름 / 멧돼지나 노루 사슴 곰 따위 / 혹은 호랑이 이리 날짐승들과 함께 / 오순도순 놀며 살아라고 / 칠남매를 낳으시고 //……" (《창작과 비평》, 1978. 겨울호).

03 ¿…Ł 2009.7.1 3:15 PM ˘ ` 77 ~ ¿£˘… ^ •´‰' 02-542-2985

햇빛 하염없이 뛰노는 언덕배기면 어떻고
소나기 쏜살같이 꽂히는 시냇가면 어떠리
온갖 짐승 제멋에 뛰노는 산속이면 어떻고
노오란 미꾸라지 꾸물대는 진흙밭이면 어떠리.

풀씨가 날아다니다
멈출 수 없는 언제까지나 떠다니는 길목
그곳이면 어떠리.
그곳이 나의 고향,
그곳에 묻히리.

-「풀씨」 전문

'내 있는 곳이 내 집'이며 '내 마음 머무는 곳이 내 고향'이라고 한 것은 어쩌면 '대장부란 가는 곳 어디메나 다 고향인 것을(男兒到處是故鄕)'이라고 읊었던 만해 한용운 선사의「득도송」의 내용에 비견할 만 하다고 하겠다.[26]

풀씨가 날아다니다 멈추는 곳이 풀씨에게는 삶의 터전이듯이 우리도 우리가 떠돌다 멈추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이다. 한 평생을 떠돌다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머물고 있는 곳, 멈춰 선 그곳이 바로 자신의 삶의 현장이고 고향이라는 의식은 결국 자유의 정신이고 해탈의 경지다.

작은 풀씨 하나로부터 인간의 삶까지 관통하는 생명의 존엄성과 자유의지, 그리고 평등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시로서 조태일 시의 생명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를 통해 조태일 시의 풀씨로 대표되는 삶의 현실 인식을 통한 시적 의미 체계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 3연 중 1연과 3연은 반복이 많다. 결국 내용의 핵심은 반복되고 있는 1연의 내용과 3연의 내용에 집중된다고 할 것이다. 물론 주제의식도 이곳에서 찾아진다. 인지대상은 '풀씨'이다. 풀씨를 통해 삶의 원형질을 밝히고 있다.

26) 김재홍·김종희,『현대문학의 이해』, 시학, 2004, p.224.

03 ¿…Ł 2009.7.1 3:15 PM ˘ ` 78 ~ ¿£˘… ^ •´‰' 02-542-2985

'풀씨'는 작은 생명의 씨앗이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씨앗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이다. 하지만 '풀씨'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생명의 출발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어디든지 날아가서 뿌리를 내리는 그 무한한 생명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으로 확장시켜 이해할 수 있다. 인지주체는 이런 풀씨의 속성을 통해 비록 보잘것없는 식물이 어떻게 끝없이 삶을 확장시켜나가는가를 통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연의 주지는 '삶과 죽음'을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그곳에 묻히리'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관조적 태도이다. 삶의 원형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2연은 '~ 어떻고, ~ 어떠리'의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삶의 원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끝없이 움직이는 것이며 그것이 인류의 원시적 형질인 '유목민(遊牧民)'적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태초의 인류는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삶의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지금의 인류로 진화할 수 있었다. 새로운 환경에 처할 때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공통의 생명현상이라는 인식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생명의식이 결국 고정이 아닌 부유이며 정착이 아닌 유랑이라는 역설적 인식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의 원형은 소극적이고 나약한 숙명적 이미지로 비칠 수 있는 이 시의 의미를 긍정적이면서 미래지향적 차원으로 고양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

조태일은 생명의 원천을 '풀씨'의 이미지에 찾았으며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서인 '고향이미지'와 결합시켜 정감어린 목소리로 삶을 겸허하게 관조하는 자세로 생성과 소멸의 순환성을 발견하면서 미래지향적 예감을 그 배경으로 삼았다. 이미지도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 / 연	인지대상	인지양상	인지행위	인지태도	인지의미
1	풀씨	날아다님	멈추는 곳	묻히리	고향 [죽음] = [생명]
2	풀씨	뛰노는 꽃히는 꾸물대는	언덕배기 시냇가 산속 진흙밭	어떠리	
3	풀씨	날아다님	길목	묻히리	

03 ¿…Ł 2009.7.1 3:15 PM ˘ ` 79 ~ ¿£˘… ^ •´‰' 02-542-2985

조태일의 시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시어가 '풀씨'이다. 풀씨는 작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다. 어디든 날아가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조태일은 풀씨를 통해 삶의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바로 어디든 날아다니고 어디든 묻힐 수 있는 존재로서 자유의지와 초탈의 자세로 삶을 관조하며 자연에 귀의하는 생명의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

본고는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연구와는 방향을 달리하여 인지의미론적 방법을 원용하여 조태일의 시세계를 분석하였다. 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면서 인지주체와 인지대상 그리고 인지양상과 인지의미 등의 이미지 도식을 통해 시를 살펴보았다. 아직 인지의미론을 원용한 시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런 점에서 다소 시기상조이며 무리한 접근일 수도 있지만 현재 문학 연구 방법론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지의미론은 많은 학자들로부터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필자는 조태일 시가 가지는 의미의 범주가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시적의미를 밝히는 인지의미론적 방법론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다. 조태일의 시는 투철한 역사인식과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주관성을 인정하는 인지의미론은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신체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국토서시'를 통해 그의 시가 추상적 대상이자 물리적 공간인 '국토'라는 개념을 우리의 몸의 이미지로 끌어들여 은유적으로 환기하여 인지영역을 확보하고 있음은 주지할만한 부분이다. 특히 뚜렷한 행위로서 국토를 인식하는 모습은 독자에게 시대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저항의식은 조태일의 초기시를 관통하는 주제어로서 의미를 지닌다. 「식칼론」을 통해 우직하면서도 비장한 그의 시세계를 관류하는 인지의미론적 소통구조를 다루었다.

조태일 시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의지와 생명의식은 진실한 삶의 추구와 맞

03 ¿…Ł 2009.7.1 3:15 PM ˘ ` 80 ˜ ¿£˘… ^ •´‰' 02-542-2985

닿아 있다. 유년시절의 체험이 그의 자유적 정신을 키웠으며 이것을 길의 이미지를 통해 시적으로 형상화 하였다. 길의 이미지 도식은 늘 새롭게 자신을 가다듬고자 애썼던 시인의 정신적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또한 「풀씨」는 인생의 의미를 조명할 수 있는 상징적 시편으로 조태일 시세계를 관통하는 시어이기도 하다. '풀씨'를 통해 보여주는 생명의식은 삶의 진실성이 자연과 합일하며 삶과 죽음의 문제를 통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는 폭넓은 작품 분석과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한 의미의 확장과 수렴이다. 특히 조태일의 시세계가 보여주는 진폭과 자장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치밀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조태일의 대표 연작시인 '국토'의 어휘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조태일의 시세계를 형성하는 의미망을 다각도로 추적하고 이를 카테고리화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연구의 선행 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조태일 시연구의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고 싶다. 아울러 인지의미론을 통한 시 연구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03 ¿…Ł 2009.7.1 3:15 PM ˘ ` 81 ~ ¿£˘… ^ •´‰' 02-542-2985

참고문헌

조태일, 제1시집 『아침 船舶』, 선명문화사, 1965.
———, 제2시집 『식칼론(論)』, 시인사, 1970.
———, 제3시집 『국토(國土)』, 창작과비평사, 1975.
———, 제4시집 『가거도』, 창작과비평사, 1983.
———, 제5시집 『자유가 시인더러』, 창작과비평사, 1987.
———, 제6시집 『산속에서 꽃속에서』, 창작과비평사, 1991.
———, 제7시집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 창작과비평사,1995.
———, 제8시집 『혼자 타오르고 있었네』, 창작과비평사, 1999.
———, 『고여있는 시(詩)와 움직이는 시(詩)』(시론집), 전예원 , 1981.
———, 『아아 내나라』(시선집), 시인사, 1982.
———, 『연가(戀歌)』(시선집), 나남출판, 1985.
———, 『다시 산하(山河)에게』(시선집), 미래사, 1991.
———, 『시창작을 위한 시론』(시론집), 나남출판, 1994.
———, 『시인은 밤에도 눈을 감지 못한다』(산문집), 나남출판, 1996.
———, 『알기쉬운 시창작 강의』, 나남출판, 1999.

강홍규,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나들목, 2004.
김경복, 「힘의 시, 생명의 노래, 역사의 기록－조태일 시의 의미」, 『생태시와 넋의 언어』, 새미, 2003.
김우창, 「참여시와 현실적 낭만주의」, 『김우창 전집』 3, 민음사, 1993.
김재홍·김종희, 『현대문학의 이해』, 시학, 2004.
민현기, 「조태일론」, 『한국현대시연구』(김용직 외), 민음사, 1989.
양병호, 『한국현대시의 인지시학적 이해』, 태학사, 2005.
이오봉, 「조태일의 시 세계」, 『진실의 시학』, 태학사, 1998.
이정민, 「언어의 표상과 인지」, 『언어학과 인지』, 한국문화사, 1992.
이주열,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해학성과 정신』, 푸른사상사, 2005.
조태일, 「현실인식, 그리고 사랑과 화해의 세계」, 김규동·신경림 외, 『서랍 속의 숨은 사

03 ¿...Ł 2009.7.1 3:15 PM ˘ ` 82 ~ ¿£˘... ^ •´‰' 02-542-2985

랑 이야기』, 정민, 1990.

강형철, 「자연을 보는 몇 개의 눈」, 《녹색평론》 49, 1999.

김현석, 「조태일 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

김형효, 「기호학과 문화의 해독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언어 문화 그리고 인간』, 고려원, 1993.

노용무, 「바람의 시인－조태일론」, 『작가연구』 제17호, 깊은샘, 2004.

민경헌, 「조태일 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2.

방인석, 「조태일 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

손택수, 「대지의 향기, 꽃 속에서 터진 말」, 《창작과 비평》, 2005. 봄호.

송희복, 「생명력의 근원과 시적 감응」, 《실천문학》, 1995. 가을호.

이동순, 「눈물 그 황홀한 범람의 시학－조태일론」, 《창작과 비평》, 1996. 봄호.

이오봉, 「조태일 시의 변모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주열, 「조태일의 '국토'에 나타난 이미지 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12.

최현식, 「민족과 국토, 그리고 미－조태일의 '국토'의 경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8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

G.레이코프, 이기우 역, 『인지의미론』, 한국문화사, 1994.

마크 존슨, 이기우 역, 『마음 속의 몸』, 한국문화사, 1992.

움베르토 에코, 서우석 역, 『기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5.

03 ¿…Ł 2009.7.1 3:15 PM ˘ ` 83 ˜ ¿£˘… ^ •´‰' 02-542-2985

Abstract

A Study on poetics of Tae-Il Joe by a cognitive semantic method

Lee, Dong Soon

This study, taking a different direction from preceding studies, analyzed the poetic world of Tae-Il Joe by invoking a cognitive semantic method. While analyzing the structures of poems, this study scrutinized the poem through the schemes of cognitive subject, cognitive object, cognitive aspect and Cognitive meaning. There have not been a large number of poetics studies using cognitive Semantic Theory. With respect to it point, this may be a premature to take this approach, However, Cognitive Semantic Theory, as a newly rising literature research methodology, has piqued the interest of many.

The author understands that the range of meaning in Tae-Il Joe's poem expands to various forms and thus expects that the Cognitive Semantic Method analyzes poetic meaning more efficiently and with greater clarity . Tae-Il Joe's poems are based on strong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reality. With respect to this, the Cognitive Semantic Theory which allows this degree of subjectivity in understanding a poem is definitely useful.

From 'Kukto Seosi' that conveys physical imagination, it was a significant point that he expanded the cognitive range of 'Kukto (National Territory)', an abstract concept and physical space, to the image of human body. Especially, the features of recognizing national territory as a distinct action was very enough to arouse reader's sympathy. In addition, it should be noticed that other Kukto series of poems were described by human body

03 ¿...Ł 2009.7.1 3:15 PM ˘ ` 84 ~ ¿£˘... ^ •´‰' 02-542-2985

words. But a concentrated discussion on this and a categorization work of images through the whole series will be continued in later study.

The willingness to resist has a meaning as a keyword throughout the early works of Tae-Il Joe. This study analyzed the communication structure throughout his works which were simple and rustic.

His cognition and the image scheme of the path are the parts reflecting the poet's spiritual attitudes making a strong effort to always restore himself into shape. Through the image of 'path', he provided an image scheme at the viewpoint of cognitive semantic theory through the symbolisms that illuminate the meaning of life.

For future study, a further in-depth inquiry is required to understand semantics through language. It seems to be important to go with a lexis approach on 'Kukto' that is one of his important work series.

This paper may be considered as a preceding framework for future study, as described above. The author intended to build up a starting point of new discussion on Tae-Il Joe's poem.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provides a clue for the studies by cognitive semantic theory.

주제어 : 조태일(Tae-il Joe), 조태일의 시(Tae-Il Joe's poems), 인지(cognitive), 인지의미론(cognitive semantics), 인지의미론적 방법(cognitive semantic method), 국토(Kukto or National Territory).